



당뇨병

태영21병원 내과 양태영 원장

고혈당 방치하면 췌장기능 50~70% 떨어져



태영21병원 내과 양태영 원장이 당뇨병 치료가 필요한 회사원에게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현재 성인의 10%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지금까지 증가세에 있고 향후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해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삶의 질 떨어뜨리는 당뇨병**=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망막병증(실명할 수 있음), 신기능장애(신기능 저하로 심할 경우 투석이 필요함), 신경병증(저림, 통증)이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모든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노년에 당뇨병에 걸릴 경우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고,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간 수많은 당뇨병 치료제가 개발되고, 치료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24시간 내내 정상혈당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혈당조절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 스트레스, 과체중, 고령 등 생활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즉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되고, 악화한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지혜롭게 바꾸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고

실명·심혈관계 합병증 가능성...꾸준한 혈당 관리

스마트폰 앱 측정·인슐린 자동 주입 등 치료 편해져

만 문제는 이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생활습관을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당뇨약제를 잘 선택하고, 혈당측정을 자주해서 혈당을 정상범위로 유지하면 합병증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부분이 바로 혈당을 자주 측정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혈당측정을 자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또한 인슐린이 필요한 환자는 바로 인슐린치료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매일 주사 맞는 게 불편해서 꺼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환자나 가족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발된 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 등이 나와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전문의를 찾아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 진단을 받고도 수년 동안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이미 췌장기능이 30~50% 정도 밖에 남지 않고 합병증이 진행된 상태이다. 당뇨병 위험인자를 미리 예측해 조기에 발견하고 혈당조절을 잘하면 아무리 심한 당뇨라 하더라도 임상증상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혈당측정과 인슐린투입의 최신 방법**=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약으로 손가락을 소독하고 피를 빼서 측정기에 대고 혈당수치를 확인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갑자기 예민한 학생들의 경우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화장실에서 혈당측정을 하는 등 심적 고통이 크다.

스마트폰과 최신 혈당측정기 등을 이용한 혈당 관리방법을 2가지 유형의 고민을 통해 알아보자.

▲**사례1**: 여고 2학년 김소희(17)양은 3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은 뒤 인슐린치료를 하고 있다. 친구들과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화장실에서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사례2**: 회사원 박영진(55)씨는 16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 이 환자는 새벽에 저혈당이 자주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등 문제다. 부인이 새벽에 2~3시간 마다 일어나 혈당을 측정 후 90mg/DL 이하면 예방적으로 설탕물을 마시게 한다고 한다.

최근에 조그마한 혈당측정기를 팔에 부착하고 있을 땀에서 스마트폰으로 혈당수치를 알 수 있는 기기가 개발됐다.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인슐린펌

당뇨병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

1. 과체중
2. 직계가족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
3. 임신성당뇨병 또는 거대아(4kg 이상) 출산력
4. 고혈압 또는 혈압약 복용중인 경우
5. 당뇨병 진단계의 과거력 보유
6. 심혈관질환(뇌졸중·심근경색·협심증 등) 환자

프도 스마트한 제품이 상용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스마트폰 크기의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용량을 조절해야 하지만, 미국에서 개발된 인슐린펌프는 크기도 훨씬 작고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용량조절이 가능해(현재 상용화된 제품은 근거리에서만 가능.) 이 두 제품 모두 현재 미국에선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일부 환자들이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사례1의 김소희양은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혈당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 집에 있는 엄마가 가끔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혈당수치를 보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사례2의 박영진씨 역시 새벽에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혈당수치만 확인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인턴 지원자 정원 초과

기숙사 등 복지여건 개선 효과 타 수련병원 미달사태와 비교

전국 주요병원에서 인턴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수련 병원들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조선대병원만이 유일하게 지원자가 많아 정원을 넘겨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선대병원의 경우, 37명 모집에 40명이 지원했다. 조선대병원 지원 인턴 40명의 출신대학 현황을 보면 조선대 의전원 출신이 28명, 의대출신 7명 등 총 40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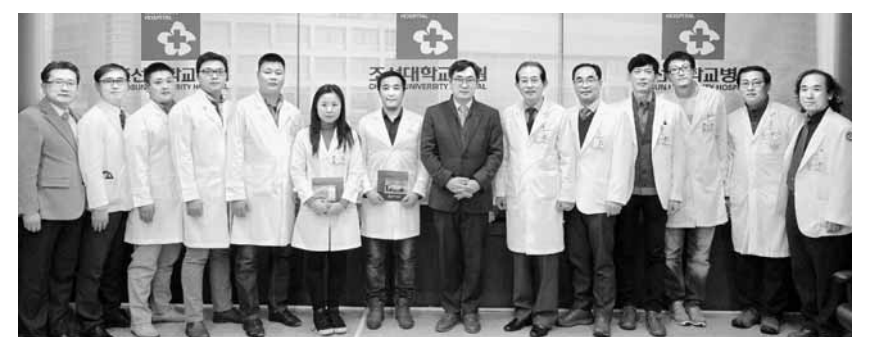
조선대병원이 인턴 확보에 성공한 이유는 지난해 2월에 발대식을 가진 '시스템개혁추진단'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운영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인턴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수련과정의 개선, 우수한 인턴복지 혜택과 급여, 국제적 경쟁력 확보 등으로 인해 지원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중 조선대병원은 인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협의진료 개선지침'을 마련, 점진적인 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구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홍 병원장은 "조선대병원이 인턴 모집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혁신의 결과물"이라며 "향후 인턴 전용 기숙사 등 복지여건 개선과 잡무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 습득을 위해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교수진과 해외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몽골 국립의대 전공의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조선대병원 제공)

몽골 국립의대생들, 조선대서 3개월 연수

몽골과학기술대 의료진 견학도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이 개발도상국 의료진과 의료봉사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의료진 교육수련 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해외 의료진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몽골국립의과대학병원 전공의 3명이 조선대병원을 방문해 3개월간 지도교수로부터 선진 의료 기술과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바이르첸걸(28), 허수출(28), 바드랄(30)은 장정환·김유석교수(외과), 서홍주 교수(흉부외과), 임동훈 교수(비뇨기과)등 조선대병원 대표 교수들이 지도교수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병동 회진과 컨퍼런스 등에 참가하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술 관련 지식 전달과 최신 의료

기기 사용법 전수 등 선진의료 기술 전달을 위한 강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몽골에도 잘 알려져 이달 초 몽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의료봉사자 교육 요청으로 의료봉사자 13명과 지도 교수 2명이 최근 일주일 동안 조선대병원에서 의료 시범 견학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의료봉사자들은 재활의학과 치료실, 영양팀, 사회사업실 등 자신의 전공 분야별 담당 부서에 배치되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몽골국립의대 전공의 바이르첸걸씨는 "조선대병원에서 교육받은 선배로부터 조선대병원과 몽골해외봉사활동 소식을 들으며 제2의 조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진 의료 경험을 통해 한국과 몽골의 의료발전은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약 복용 이력 3개월치 제공 '심평원 한눈에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활용 및 협업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

부3.0 협업과제로 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전서비스)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 이력 데이터를 활용, 국민과 요양기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이다.

국민들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그 약은 어떤 효능·효과가 있

는지 ▲하루에 몇 번을 먹는지 등 최근 3개월간의 전체 의약품(비급여 의약품 포함) 복용 정보를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여 개인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은 담당의사가 환자 진료나 수술, 처방 시 의약품 복용 정보를 사전 확인함으로써 약화(藥禍) 사고를 예방하

고, 진료의 질 향상 및 안전 의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정보보호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용 가능하며, 요양기관이 해당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국민이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더라도 2단계로 환자의 동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술의사 바뀔 때 환자 측 동의 의무화

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술 의사 변경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

던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대리) 수술'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성형외과의사회는 2013년 한 여고생이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유령수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5타경 8558	1	나주시 도계동 314-4 132㎡ 나주시 송림1길 9-1 71.43㎡ 부속건물 등 면적 1,44㎡ 지상와 차상 등 38㎡	대 단독주택	54,747,880 54,747,880	말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5타 경 13058[영합]
2015타경 11234	1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산78-2 3052㎡ 토지 산78-4 34㎡	임야 임야	55,922,000 55,922,000	말괄매각, 제시외 면적 [축사용]매각 제외, 분묘있음
2015타경 12152	1	영광군 불광면 녹산리 산32-3 2728㎡ [유영 척지분2/17전부, 분묘소제]	임야	1,476,324	공유자우선매수권 분묘소제
	2	영광군 불광면 모악리 산58 17752㎡ [유영 척지분2/17전부, 분묘소제]	임야	4,803,481	공유자우선매수권 분묘소제
2014타경 30443	1	관산구 우산동 1609-6 491.3㎡ 관산구 우진대로212번길 14-5 1층227.94㎡ 여관 [음식점, 여관] 2-5층각220.92㎡ 지층356.2 2㎡ [주자용, 단독주택, 보일러실]	대 여관	1,137,780,280 1,137,780,280	말괄매각, 매각외 전대가능

2.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 비공개 기밀입찰에 의한 사정,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보증금의 동결을 기하여 보증금에 한하여 입찰보증금에
 내어 입찰하여 우선순위를 얻는다. 입찰보증금의 납입은 최저매각가격의 10% [10%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은 입찰금의 자기납입으로 또는
 을 납입하거나 최고입찰가격의 50%를 납입한다. 보증금의 납입은 보증금의 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찰의 무효: 입찰보증금의 납입이 없는 경우 또는 입찰금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입찰금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③ 입찰보증금의 무효: 입찰보증금의 납입이 없는 경우 또는 입찰금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입찰금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④ 입찰보증금의 무효: 입찰보증금의 납입이 없는 경우 또는 입찰금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입찰금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⑤ 입찰보증금의 무효: 입찰보증금의 납입이 없는 경우 또는 입찰금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입찰금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⑥ 입찰보증금의 무효: 입찰보증금의 납입이 없는 경우 또는 입찰금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입찰금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